주가	환율	금리
+8.12	+0.30	+0.01
1,356.72 (코스피지수)	955.50원 (원/달러)	4.6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82.04	(+7.82)
다우(13일)	11,960.51	(+12.81)
나스닥(13일)	2,357.29	(+11.11)
닛케이	16,692.76	(+156.22)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9.33엔	(+2.84)
유로 달러 환율	1.2505달러	(-0.46)
3년만기 회사채	4.93%	(+0.01)
콜금리	4.48%	(보합)

전남 시설하우스 채소값 폭락

오이, 2만5천원→2,500원 90% 하락
농가 생산비도 못건져 폐기처분 위기

추석 이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출하물량이 급증하면서 오이·호박 등 농산물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특히 나주지역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 경락가격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90%에서 적게는 50%까지 떨어졌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오이(8kg)의 경우 지난해 2만5천원이던 것이 지난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2천500원에 거래됐다.

배추(10kg)는 5천150원→1천990원(-61.3%), 풋고추(10kg) 2만9천73원→1만4천750원(-49.2%), 대파(1kg) 1천370원→925원(-32.5%), 애호박(20개) 1만5천188원→6천500원(-57.2%), 수박(1kg) 1천146원→693원(-39.5%)으로 각각 떨어졌다.

광주서부도매시장에서도 풋고추(10kg) 1만8천800원→1만1천300원(-39.8%), 홍고추(10kg) 2만2천500원→1만4천원(-37.8%), 애호박(8kg) 1만4천500원→5천원(-65.5%) 등으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나주 오이하우스 농가들은 박스(개당 800원) 구입비와 운임비(박스당 900원), 인건비를 빼고나면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어 생산된 오이를 폐기처분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 서울가락동시장 농산물 가격추이 〈단위:원〉

품목 \ 연도	2005. 10	2006. 10
오이(8kg)	25,000	2,500
배추(10kg)	5,150	1,990
풋고추(10kg)	29,073	14,750
대파(1kg)	1,370	925
애호박(20개)	15,188	6,500
수박(1kg)	1,146	693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출하물량의 10%를 폐기처분할 경우 오이 1박스당(8kg) 1천248원을 보전해준다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농가들은 생산비는 커녕 내년 영농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J모(42·나주시 산포면 덕내리)씨는 "나주시와 농협이 적정가격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나주지역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전체 출하물량을 소화해줘야 한다"면서 "내년 농사도 여기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청내 직원을 통해 주문판매를 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산물 유통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연계한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지역의 경우 나주시 송촌동을 비롯해 남평읍, 산포면 등지에서 3천600농가가 시설하우스를 통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주유소 석유제품 30%
'타사제품과 혼합 판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30%는 주유소 표시와 다른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주유소에서 공급하면서 타사 제품을 섞어서 속여팔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기름 바꿔치기'에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주유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인천정유 등 정유 5사의 내수 판매량은 총 2억3천746만배럴로, 이 가운데 7천323만배럴(30.8%)은 타사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현대오일뱅크가 전체 내수판매량 가운데 40.1%를 타사 제품을 구입해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기청 기술지도사업 호평
바이오닉스, 가습기 100만불어치 수출

광주 첨단단지내 생활가전 전문업체인 바이오닉스(대표 황현배)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이 지원하는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독특한 디자인 제품을 개발,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바이오닉스는 지난해 중기청의 도움을 받아 펭귄 모양의 아로마 가습기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에만 일본·싱가포르·미국 등지에 100만불 어치를 수출했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과 수출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300만불 수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현대 배표는 "중기청 기술지도를 적기에 받아 적은 비용으로 제품고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개선과 디자인 개발에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올해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설계분야 22건, 애로기술개발 31건, 공정개선 23건, 품질관리 22건, 디자인개발 14건 등 112건의 기술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062)360-9132.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쇼핑 도우미 'LCD모니터'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각층 에스컬레이터 쪽에 LCD모니터를 설치하고 사은행사와 브랜드별 위치, 비상출구 안내 등 쇼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홈피·게시판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달말께 입법 예고한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막고 건축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등 빈도를 고려,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 게시판 등에 게재, 입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 조항으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주민간 마찰을 자주 빚어왔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 수·변전설비의 담보를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 공사 등을 4년으로 확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기 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강영태)는 중소기업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비 전액을 포함,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성공 판로개척을 위한 영업마케팅과정(10월 18~20일) ▲탁월한 CEO가 되기 위한 석세스-Biz과정(10월 25~27일) ▲중소기업B2B 마케팅 전문가과정(11월8~10일) 등. 각 과정별로 선착순 접수된 3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1층)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는 물론 1인당 24만6천원 안팎의 교육인건비를 참가업체에 지급한다. 참조는 홈페이지 (www.kbiz.or.kr/branch/gj), 문의는 (062)955-9966.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국산 '물먹인 생선' 많다

조기·명태·주꾸미 등 6종

물을 이용, 의도적으로 중량을 늘린 중국산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의뢰, 조기·새우살·바지락·주꾸미·명태·낙지 등 대표적 중국산 냉동 수산물 6종의 해동 전후 무게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산 냉동 수산물은 녹은 뒤 무게가 녹기 전 보다 평균 18% 정도 줄었고, 대부분 표시 중량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우 의원은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비율을 최근 4년간 연평균 중국산 냉동 수산물 수입량 32만t에 적용하면 한 해 5만8천여t의 '맹물'에 수입하는데 1천억원을 지급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중국 수산물 가공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의 안정성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車보험료 내달 줄줄이 인상

제일화재 1.6%·현대해상 1~2%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내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의 보험료를 평균 1.6% 인상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11월1일부터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1.5% 올리며 현대해상은 내달 초에 차종과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1~2% 인상한다.

그린화재와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이달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7%, 1% 각각 올리는 등 일부 보험사는 이미 보험료를 인상했다.

메리츠화재는 이달들어 과거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는 9월 중순부터 대형차 가운데 배기량 2천500cc 이하의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료는 2.1% 인상하고 2천500cc 이상은 2.3% 인하하는 등 배기량별로 보험료를 조정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8월부터 긴급 출동 서비스의 하루 이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외제차는 차량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일화재는 일부 차량의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를 올렸다.

대부분 보험사가 사고 경력과 배기량,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했거나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일부 올리는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